

테니스 스타 총출동...광주오픈 챌린저 팡파르



19~26일 진월국제테니스장서
30개국 200여명 선수단 참가
10만달러 상금·75점 랭킹포인트
권순우·정현 등 대표 선수 출격

국내 테니스 스타들이 광주에서 세계적인 선수들과 경합을 펼친다.

세계 테니스인들의 축제인 '2026 광주오픈 국제남자 챌린저 투어 테니스대회'(이하 광주오픈)가 오는 19일부터 26일까지 8일간 광주 진월국제테니스장에서 개최된다.

세계남자프로테니스협회(ATP)와 대한테니스협회가 주최하고 광주시테니스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30개국 2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우승 상금과 랭킹 포인트를 놓고 경쟁한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광주오픈은 ATP 챌린저 투어 대회다. 세계 랭킹 100~300위권 선수들이 상위 투어 진입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등용문으로 꼽힌다.

총상금은 10만7000달러 규모로, 단식 우승자에게는 랭킹 포인트 75점과 1만7000달러의 상금이 주어진다. 복식 우승팀에는 4980달러가 지급된다.

이번 대회에서는 국내 선수들의 활약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 테니스 간판' 권순우(국군체육부대)와 정현(김포시청)이 나란히 와일드카드



지난해 열린 2025 광주오픈 국제남자 챌린저 투어 테니스대회 권순우와 박의성이 복식 경기를 펼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테니스협회

를 받아 단식 본선에 출전한다.

군 복무 중인 권순우(ATP 단식 338위)는 한국 선수 최초 ATP 투어 단식 2회 우승(2021년 9월 아스타나오픈·2023년 1월 애들레이드 인터내셔널 2차 대회) 경험을 보유한 한국 대표 예이스다. 챌린저 대회 단식 4회 우승 경력도 있는 그는 올해 초 베트남 챌린저 우승을 통해 부활의 신호탄을 쏘았다.

이어 2026 테이비스컵에서도 아르헨티나 트루젤리타와 티란테를 꺾고 한국의 첫 퀸리파이어 2라운드 진출에 기여했다. 정현(ATP 단식 549위) 역시 2018년 호주주

론 4강 진출 등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입증한 선수로, 최근 국가대표로 활약하며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밖에 구레 출신 박의성(ATP 716위·대구시청), 정윤성(ATP 949위·국군체육부대)과 신우빈(ATP 643위·국군체육부대), 추석현(ATP 998위·국군체육부대), 안석(ATP 949위·한국산업은행), 남지성(ATP 760위·당진시청) 등이 대거 출전해 세계 선수들과 기량을 겨룬다.

해외 선수로는 올해 멕시코시티 챌린저에서 우승한 세계랭킹 86위 제임스 덕위스(호주)를 비롯해 도미니카공화국 캡 카나 챌린저 3위 에담 윌튼(호주·세계 111위), 일본 옷카이즈 챌린저 32강 쇼 시마부쿠로(일본·세계 112위), 산 루이스 포토시 챌린저 4강 트리스탄 스킨케이트(호주·세계 116위), 캡 카나 챌린저 8강 플랜 윙(홍콩·세계 125위) 등 정상급 선수들이 참가해 수준 높은 경기를 예고했다.

대회는 단식·복식의 예선과 본선을 포함해 총 64경기가 진행된다.

세부적으로는 19~20일 남자 단식 예선전, 20~24일 남자 단식 본선전, 21~23일 남자 복식 본선전, 24일 남자 복식 준결승, 25일 남자 단식 준결승으로 진행된다.

대회 하이라이트인 복식 결승전은 25일 열리고 단식 결승전은 마지막 날인 26일 진행된다.

또 광주시테니스협회는 광주오픈기간동안 생활체육 테니스 대회를 동시 개최한다.

오는 25일 여성동호인대회, 26일 MZ세대를 위한 테니스대회를 개최해 동호인들이 경기를 즐기고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광주오픈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시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행사도 마련된다. 광주오픈 대회기간 중 정현, 권순우, 박의성, 신우빈 등이 참여하는 현지 국가대표 사인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광희 광주시테니스협회장은 "광주오픈에 국가대표를 포함 국내 우수선수들이 대거 출전해 세계 우수 선수들과 수준 높은 경기를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며 "스타 선수 경기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로 색다른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



광주시체육회는 최근 '제109회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관계기관 TF 7차 회의를 열고 경기장 배정(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사진제공=광주시체육회

시체육회, 전국체전 준비 가속 TF 7차 회의서 경기장 배정 논의

광주시체육회가 '2028 전국체육대회'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시체육회는 최근 시체육회관 중회의실에서 '제109회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관계기관 TF 7차 회의를 열고 경기장 배정(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광주시 체육진흥과(기획팀·시설 조성팀)와 광주시체육회, 광주시장애인체육회 관계자 등 전국체전 TF 위원 15명이 참석해 종목별 경기장 배정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종목별 경기장 검토 결과와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

또 공인 구역 충족 여부를 비롯해 광주권 접근성, 공공성·경제성, 이용자 편의성 등을 기준으로 전국체전 50개 종목과 전국장애인체전 종목의 경기장 배정 방향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광주월드컵경기장과 진월국제테니스장, 광주국제양궁장, 빛고을체육관 등 주요 체육시설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경기장 활용 방안이 논의됐다.

전국장애인체전 경기장 배정도 함께 다루졌다. 장애 유형과 종목 특성을 고려해 광주권 내 경기장 우선 배치 원칙을 유지하되,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공인 구역 충족 여부와 운영 여건 등을 반영해 복수 후보지를 검토했다.

시체육회는 이번 회의의 결실을 통해 단순한 시설 배정을 넘어 종목 특성과 운영 효율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2028년 제109회 전국체전은 경기장 여건과 종목 특성 등 현실적으로 반영해 준비하고 있다"며 "경기장 배정은 대회 운영 완성도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인 만큼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성공 개최 기반을 차질 없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

전남 조정, 탄금호배 대회 '은 2·동 1' 여고부 경량싱글·여일부 더블스컬 2위

전남 조정계 '제15회 춘추 탄금호배 전국조정대회'에서 다수의 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다.

14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전남 남 선수단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충북 충주시 탄금호조정경기장에서 열린 대회에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따냈다.

여고부 경량싱글에 출전한 윤담인(문양고 3년)은 8분40초85를 기록하며 2위에 올라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윤담인은 지난해 제14회 대회에 이어 2년 연속 은메달을 차지하며 꾸준한 경쟁력을 입증했다.

여일부 경량더블스컬에서는 김미수·유지현(장성군청)이 7분46초25로 2위에 올랐다. 이들은 지난해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은메달에 이어 다시 한번 입상에 성공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남고부에서도 기대를 모으는 성과가 나왔다. 무타페이 종목에 출전한 임서우·임서준(이상 장성하이텍고 2년)은 7분41초07로 3위를 기록,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대회 성과는 전남 조정계 선수층 확대와 육성 시스템이 점차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평가된다. 특히 학교체육 현장에서는 도교육청과 전남조정협회, 문항고·장성하이텍고·장성중·장성여중 등 지역 내 조정부 운영 학교가 협의회를 구성해 지원체계를 강화한 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송하중 기자

구레 출신 박의성 "우승 목표...전부 쏟아부을 것"

구레 출신 테니스 국가대표 박의성(대구시청)이 "2026 광주오픈 국제남자 챌린저 투어 테니스대회" 정상 도전에 나선다.

박의성은 오는 19일부터 26일까지 광주 진월국제테니스장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 단식 본선과 복식 모두 와일드카드를 받아 출전한다.

대회를 앞두고 진행된 14일 사전 인터뷰에서 박의성은 "한국에서 열리는 대회인 만큼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며 "광주오픈 우승이 최종 목표로,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으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번 대회는 박의성에게 네 번째 광주오픈 출전이다.

그는 지난해 대회에서 단식 16강, 복식 8강에

단·복식 와일드카드 출전 후배들 응원 대한 기대도 "서브·백핸드에 자신있어"

오르며 경쟁력을 입증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국가대표 데뷔전 승리와 테이비스컵 출전 경험을 쌓으며 한층 성장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박의성은 최근 컨디션에 대해서 "복식 경기력은 많이 좋아졌고 단식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현재 컨디션은 좋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컨디션이 떨어지면 "운동량을 늘리거나 생

각을 깊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극복한다"고 덧붙였다.

자신 있는 플레이로는 서브와 백핸드를 꼽았다. 또 멘탈 관리 비결로는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며 집중력을 유지한다"고 전했다.

대회가 열리는 진월국제테니스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박의성은 "스타디움이 잘 갖춰져 있어 경기에 집중하기 좋고 코트 시설도 뛰어나다"고 언급했다.



박의성 테니스 국가대표 선수

후배들의 응원에 대한 기대감 또한 드러냈다. 그는 "후배들은 경기 결과에 큰 영향을 준다. 함성과 응원에서 많은 힘을 얻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의성은 "챌린저 대회는 출전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크지만, 꼭 이기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많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26 광주오픈 국제남자 챌린저 투어 테니스 대회'는 국내외 선수들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송하중 기자 hajong2@

광주체중 육상부, 익산보석배 전국대회서 무더기 메달

26명 출전...금 4·은 3·동 3개 획득
김아인 100m 금메달 등 2관왕 활약

광주체육중학교 육상부가 '익산보석배 2026 전국 육상경기대회'에서 무더기 메달을 획득했다.

광주체중은 최근 전북 익산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대회에서 금메달 4개, 은메달 3개, 동메달 3개를 획득했다.

이번 대회에서 광주체중은 26명이 출전해 단거리와 허들, 중·장거리, 계주, 필드 종목 등 전 부문에서 경쟁력을 입증했다.

가장 돋보인 선수는 김아인(3년)이었다. 김아인은 여중부 100m에서 12초74, 100m 허들에서 16초39의 기록으로 각각 금메달을 획득하며 2관왕에 올랐다.

특히 100m 허들에서는 이세령(2년)이 16초87로 은메달을 차지해 광주체중이 금메달과 은메달



최근 전북 익산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익산보석배 2026 전국 육상경기대회'에서 금메달 4개, 은메달 3개, 동메달 3개를 획득한 광주체중 육상부 선수단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체중

을 나란히 석권했다.

여중부 400m에서도 광주체중의 활약이 이어졌다. 이세령이 59초45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류

지우(3년)가 59초89로 은메달을 보이며 해당 종

목에서도 강세를 보였다. 남중부 400m에서는 김현호(3년)가 53초25의

기록으로 동메달을 획득했다.

장거리와 계주 종목 역시 메달 행진이 계속됐다. 신윤아(3년), 김지은(3년), 은예령(2년), 윤슬이(1년)로 구성된 여중부 3200m 계주팀은 안정된 팀워크를 앞세워 은메달을 차지했다. 또 여중부 3000m에서는 안예지(3년), 남중부 3000m에서는 유시은(1년)이 각각 동메달을 추가했다.

필드 종목 또한 값진 성과가 나왔다. 남중부 세단뛰기에 출전한 이호준(3년)은 12m94를 기록하며 금메달을 획득했고, 높이뛰기에 나선 김민기(2년)는 동메달을 보냈다.

광주체중은 이번 대회를 통해 특정 종목에 치우치지 않고 트랙과 필드를 아우르는 고른 전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단거리와 허들에서의 경쟁력은 물론 중·장거리, 계주, 도약 종목까지 전반적인 경기력이 살아났다는 평가다.

이병관 광주체중 교장은 "대회 기간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기량 향상을 입증한 선수들이 대견하다"며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도 최고의 기록을 낼 수 있도록 실전 중심 훈련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